

# 광주시·모빌리티 선도기업 ‘자율주행 국가대표팀’ 결성

민·관·연 7곳 MOU...국비 610억 투입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량 200대 실증  
AI기반 데이터학습·기업 상주 등 지원  
羨시장 “AI·모빌리티 산업 완성 총력”

광주시가 세계적 자율주행 실증도시 도약을 위해 국내 모빌리티 선도기업들과 ‘K-자율주행 국가대표팀’을 결성했다. 광주시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은 광주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라이드플렉스,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 등 자율주행 산업을 견인하는 민·관·연 7개 기관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민우 현대자동차 사장,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한지형 (주)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박중희 라이드플렉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글로벌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의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대표급 협력 모델’을 통해 광주를 세계적인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정책·제도 수립 및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반적인 사업 관리와 행정 지원·기술적 성과 검증 등 수행한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주행 차량 공급, 기술 제어 지원, 실시간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식’에 참석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내빈들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차량 모니터링 환경 제공, 자율주행 전용 보험 상품 및 사고 대응 안전망 구축 등을 맡아 실증의 실효성을 높인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서 보유한 독보적인 기반시설을 사업에 전폭 지원한다.

국내 유일 국가 AI데이터센터의 GPU 자원을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실증 참여 기업들을 위해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내 기업 상주 공간 및 관제센터 제공,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전용 차고지 및 충전 스테이션 구축, 자율주행 사고 대응 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은 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2026-2028년 3년간 추진하는 전국 최초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에 따라 광주에는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투입돼 시범운행을 진행한다.

특히 이 사업은 광주에서 확보된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무인화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E2E(End-to-End) 기반 AI 기술’ 검증에 주력한다.

광주시는 도심과 농촌이 복합된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실증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미

래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제조와 플랫폼 기술 개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기업들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40년여간 민주주의 도시로 꽃피운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도시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기아와 GGM이라는 2개의 완성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 또한 한 새로운 역사를 쓴다. 자율주행 실증을 시작으로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국가 AI컴퓨팅센터 전남 유치 최종 확정

삼성SDS컨소시엄 SPC 설립 후 7월 착공

2030년 GPU 총 5만장 단계적 확보 목표

해남 솔라시도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부지로 확정되면서 전남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 사업에서 솔라시도에 입지를 제안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SDS 컨소시엄에는 삼성SDS주와 네이버클라우드(주), 삼성물산(주), 카카오(주), 삼성전자(주), (주)케이티, (주)리쉬, 전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SDS를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초거대 AI 연산

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운영 능력을 입증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됐다.

특히 전남도의 AI 데이터센터 입지 준비와 국내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기업인 삼성SDS 컨소시엄의 기술 역량이 결합한 결과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컴퓨팅 자원을 집적해 운영·관리하고 산업·연구 등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2028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천장, 2030년까지 5만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설계 수립과 신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진행 중이며 7월께 착공해 2028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출자금만 4천억원이며 2030년까지 2

조4천6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솔라시도 일대에는 관련 기업 입주와 전문 인력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6조4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조5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약 1만9천5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가 그동안 공들인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결정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삼성SDS 컨소시엄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컴퓨팅 환경을 조성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국가 AI컴퓨팅센터 조감도.

## 이정선 “전국 최고 수준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전남광주 진학 책임제 공약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남광주 진학 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13일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남·광주 전체를 하나의 진학 플랫폼으로 묶어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 수준의 진학 컨트롤타워인 ‘진로진학교육원’과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책임지는 ‘진로진학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 입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거점국립대와 연계한 ‘통합교육감 지역인재 추천 전형’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학교마다 서울 대차동 고액 입시 컨설팅이 부럽지 않은 ‘1고교 1대입전문가’를 배치해 1학년 때부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진로진학 상담버스’로 농어촌과 교육 소외지역 학생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가 힘을 모아 전국 최고 수준의 공교육 진학 시스템을 만들면 서울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며 “수능 만점과 명문대 합격 소식 이 전남·광주에서도 나오도록 교육의 판을 바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욱 기자

## 김대중 “지역 강점 결합 ‘통합 2030교실’ 구축”

“매년 306억 투입 300개 조성”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전남의 풍부한 수업 연구 역량과 광주의 첨단 AI 인프라 등 각 지역의 강점을 결합한 ‘통합 2030교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 “전남의 ‘글로벌 미래교실’ 운영 경험과 광주의 ‘AI 팩토리’ 구축 역량을 결합한 ‘통합 2030교실 모델’을 개발해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광주권 위주의 ‘도시형 2030교실’은 AI 기반 학습 분석 모델을 적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극대화하고 전남권 중



심의 ‘농산어촌형 2030교실’은 시공간의 제약과 언어장벽이 없는 모델을 적용해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예비후보는 “30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각 모델별로 150개씩, 총 300개의 교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남의 우수한 수업 연구력이 광역 단위로 확산되고 광주의 풍부한 AI 자원이 실제 교실 수업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 통합이 완성된다”며 “통합 2030교실을 통해 디지털 교육의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시작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욱 기자

